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다니엘 3:13-18)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목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하는 축복의 통로들이다. 하나님은 3가지 지식을 통해 알아간다.

1. 이성적인 지식. 성경공부나 책등을 통해 이성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마22:37)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식으로 알게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2. 체험적 지식이다.**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체계를 잡으면 풍조에 요동하지 않지만 냉랭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마음에 확신과 감동, 뜨거움이 있는 신앙이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말씀(지식)을 주심으로 체험과 지식(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처럼 중요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신앙으로 흘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신앙에 머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아는 **3. 관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신앙의 더 큰 목표로 삼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균형잡힌 신앙이 된다. 본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을 것이라는 엄포에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언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구원하시는 복된 믿음을 가지는 축복임을 깨닫게 한다.

1.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신다는 믿음을 가진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요동치 않고 믿음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진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대로 구원하셨고 높여주셨다.

2.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기 때에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이심을 믿기에 시험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환란을 이겨낸다. 바울은 복음전하다가 이해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만났다. 그래도 바울은 ‘그리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사명을 완수하였다.

3.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약속을 지키셨다. 단3: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다니엘 3:13-18)

1. 마음으로 만나기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경배와 찬양(Worship) 찬송가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 말씀 나누기 (Word) : 단3:13-18 말씀을 읽고 쉐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1)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나누어 보라.

2)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지식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

2)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신앙과 체험하여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아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하는 (17,18절)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각 자의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씩을 적고 순위를 정해보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에 두는 지를 나누어 보고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4.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Work of Prayer)

1) 참석한 쉐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2)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락다운 기간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 성도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주소서
- 담임목사님과 온 성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 추수감사예배(11월15일)가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